

Odus News

www.odus.co

[오더스가 귀하의 새해를 응원합니다]



2018년 2월호

(주)오더스/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262 (우)27657
TEL 043-878-7956/ FAX 043-878-7957

오더스뉴스

 오더스의 새로운소식과 최신농업동향을 전합니다.

1. '영농자재' 신문에 당사 광고 실려

2월 제44호 영농자재 신문에 당사 제초제 '위니아워드' 광고가 실렸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농자재 newsFM
제44호 2018년 2월 5일
The Farming Materials News

'공동품목'은 농약업계의 '계륜'이다?

농약 '공동품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농약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품목은 농업인들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연간 7000억원의 매출규모(전체시장 125000억원의 46% 수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회사에만 이익 '제로(0%)'로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고, 농약시장에선 음풍질서를 야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품목'이 농약시장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다각도로 분석된다. 우선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품목은 '기 부(Ma-Bis)'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공동품목'의 날에 빠져 '달금과일'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약회사들은 매출규모 달성에 임하여 출혈경쟁을 서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동품목은 특히 농약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알해야 본편"인 수익구조에 갇혀 있으면서도 농업인 선호도가 높아 농협이나 시판에서 요구하는 공급인수율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와중에 어느 기업회사가 전략적으로 경쟁력을 소망한 생산해 덤핑판매에도 할라치면 '덤핑가격'에 맞춰 밀어내거나 아니면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야말로 "물수확 작작"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약회사들은 이러한 공동품목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신제품' 등록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물론 농약회사들이 앞다퉈 신제품 등록에 나서는 이유는 복잡해질 수 있겠으나, 현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의 한계이다. 글로벌 원제 회사들 역시 신규 물질 개발이 더디다 보니 '제대로 된 품목' 출시가 어려워지면서 동일한 물질(원제)을 활용해 '제형'을 달리하거나 '함량'을 만드는 방법으로 소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농약제조회사(에이치)들이 오랫동안 실행해온 국내시장에 후발입자들이 대거 진출한 이후 경쟁구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약회사들마다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제품' 등록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농약시장의 심화된 경쟁구도는 최근의 신제품 등록 현황에서도 찾아진다. (사)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농약연보와 농촌진흥청 농약등록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등록농약은 총 2085 품목(2017년 말 현재)에 이르며, 이중에 최근 3년(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신규로 등록된 농약은 500개 품목에 달한다. (31~32)

그러나 이들 500개 품목 가운데 오리지널 현재 품목(단계 품목, 이하 '오리지널 품목')은 아주 드물다. 딱히 글로벌회사가 모든 '오리지널 품목'을 먼저 등록·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등록된 국내 신규품목 현황을 보면 메이저 8개 회사들은 231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제초효과 위니아워드!!

(주)오더스
www.odus.co
전화번호 1566-7165

위니아워드는 지상부에서 뿌리까지 빠르게 흡수되어 30일 이상 제초효과를 보입니다.

2. 3월 7~9일 중국 상해 CAC 농업 전시회 참가

당사는 2018년 3월 7일 ~ 9일 3일간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열리는 제 19회 중국국제농화학및작물보호박람회(CAC)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 최대의 비료 및 작물보호(농약) 전문 박람회로, 당사는 매년 참가하여 비료 및 작물보호산업의 세계 시장 파악 및 동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외 고객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제적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 부스 위치는 'HALLN4, G01' 입니다. 많은 성원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CAC

1월 오더스 추천제품 이달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01

하우스 작물(딸기, 오이, 토마토 등) 비대촉진을 위하여! **점핑골드**

4L, 동물성아미노산, 수용성휴믹산, 복합미량요소



- 뿌리에 빠르게 흡수되어 심근과 세근을 형성시키고 활착을 촉진시킵니다.
- 작물의 세력강화 및 개화, 착과, 비대에 우수하게 작용합니다.
- 수용성휴믹산의 함유로 토양의 입단화와 비옥도를 향상시켜줍니다.

02

고두병 예방과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프로티칼**

500ML, 동물성아미노산, 킬레이팅 칼슘, 붕소, 몰리브덴



- 칼슘 흡수이행이 어려운 기존칼슘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아미노산과 칼슘의 킬레이팅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 대사활성을 통한 노화작용을 억제하여 황화현상, 무름병, 고두병 등을 예방합니다.
- 저장성 향상 및 과중 증대를 통한 고품질 작물생산이 가능합니다.

03

낮은 지온 및 기온으로 인한 냉해 예방을 위하여! **해모수**

500ML, 해조추출물 (*Ascophyllum nodosum*)

공시-2-2-18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해모수는 북대서양의 차갑고 냉혹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청정 해조류인 아스코필럼 노도섬(*Ascophyllum nodosum*)에서 추출한 천연 영양물질이 고농축 함유된 천연 작물활성제입니다. 작물의 냉해 및 저온장해는 물론, 각종 생리장애예방에 효과가 우수하며 작물의 비대향상 및 품질향상에 효과적인 최고급 친환경 해조추출물입니다.

비료 이야기

비료에 대한 정보를 연재합니다.

질소질 비료 이야기입니다.

나) 작물의 뿌리가 많이 분포한 곳에 시비한다.

- ① 인산은 토양 속에서 거의 이동(6개월 동안 2cm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물 뿌리가 많이 분포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 ② 작물의 인산흡수속도는 인산의 농도에 의해 지배된다. 예를 들어 지온이 낮은 경우나 인산고정력이 큰 화산회 토양 등에는 보통의 몇 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 시기에 주의한다.

- ① 인산은 작물의 초기생육부터 흡수되어 초기생육의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비의 효과는 모든 작물에서 확실히 인정되고 있으나 토양 속에서는 시간경과와 함께 불가급태화하는 경우도 있어 인산추비의 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인산은 기온이 낮아지면 제일먼저 흡수가 떨어지는 성분이므로 저온이 계속되거나 가물 때 웃거름으로 시비하면 효과가 있다.
- ② 최근 이앙기가 6월 중순 -> 5월 중하순으로 앞당겨짐으로써 인산의 효과가 커져 더 많은 인산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일맞은 인산 비료를 선택한다.

인산고정력이 작은 충적토양에서는 인산의 형태에 주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산고정력이 큰 토양에서는 구용성 인산질비료(용성인비 등)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또 단기 생육작물에서는 수용성, 장기 생육작물에서는 구용성과 수용성이 혼합된 것이 효과적이며 인산 축적 토양에서는 수용성이 더 효과적이다.



병해충 발생정보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흰가루병, 노균병, 작은뿌리파리, 꼬마배나무이에 대해 예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흰가루병 : 토마토, 고추, 오이, 딸기, 상추 등



▶ 일조가 부족하고 밤낮의 온도차이가 심하면서 건조한 경우에 병 발생이 증가하는데, 2월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피해가 우려 됩니다.

흰가루병 포자는 일출 후부터 오전 10시경까지 포자 비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약제 살포는 오전 10시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같은 계통의 약제 연용 시 약제저항성균이 쉽게 생겨 방제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하세요.

2. 노균병 : 토마토, 고추, 오이, 딸기, 상추 등



▶ 야간에 보온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웃거름 주기, 햇볕 쬐임 등으로 생육을 튼튼하게 하면서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하세요.

특히 오이 시설재배 중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찬바람이 식물체에 직접 닿을 경우 노균병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환기할 때 유의하세요.

3. 작은뿌리파리



- ▶ 발작물, 채소, 화훼 등에서 전생육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유충은 지제부와 뿌리에 해를 입혀 시들음병이나 풋마름병과 같이 지상부 시들음증상을 유발합니다. 발생여부와 발생량 예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충은 감자 절편에 잘 유인되기 때문에 깍두기 모양의 크기로 감자를 절단하여 작물의 뿌리 주변에 놓아두세요. 성충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지상부 50cm 이하에 설치하세요.

4. 꼬마배나무이 : 배(노지작물)



- ▶ 최적 방제시기인 산란(3월 상순)전에 기계유유제를 살포하여 방제하세요. 기계유유제의 경우 산란된 알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적방제시기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최적 방제시기 : 2월1일부터 최고온도 6°C이상의 날이 16~21번째 되는 날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http://ncpms.rda.go.kr>)의 '병해충예측-병해충예측지도' 메뉴에서 내 농장 지역의 최적방제시기와 과수원내 꼬마배나무이 밀도를 살펴보고 기계유유제를 살포 하세요.